

'세계 책의 날' 맞아 기념행사 개최

황희 문체부 장관, 행사 참석 후 출판업계 애로사항 청취
"9월 개통 출판유통통합전산망으로 출판 유통 개선 기대"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지난 23일 파주출판도시에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기념행사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이날 오후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

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세계 책의 날'은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책을 시는 사람에게 선물하던 '세인트 조지의 날'과 1616년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23일

사망한 역사 등에서 유래했다. 전 세계인의 독서 증진 등을 위해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은 시민 423명에게 책과 장미를 선물하는 '책드림' 행사에 동참된 시민들과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대화를 나눴다.

보길도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한 초등학생은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책을 선물 받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 장관은 코로나19로 자녀의 결혼이 연기됐다 다음달 식을 올린다는 시민에게는 문체부 명의 화환 선물을 약속하기도 했다.

기념행사 이후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파주출판문화도시 입주기업체협의회, 한국출판인회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대표 등 출판문화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황 장관은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출판문화산업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중에서 매출, 종사자 수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올해 9월 정식 개통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운영을 통해 출판유통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도 전산망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의 수립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토론회 등의 통로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3일 경기도 파주시 파주출판단지 지혜의 숲 문방살롱에서 열린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책과 장미액자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류창선



장문희

관소리마당 '소리 관' 완창무대

국립민속국악원, 5월 매주 토요일 예음헌서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에서는 관소리 흥보가를 5월 한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완창무대로 만날 수 있다.

관소리 완창공연의 정착과 관소리 대중화를 위해 기획한 관소리마당 '소리 관'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출연자를 선발하였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고의 실력을 보유한 명창들이 출연한다.

그 첫 번째 출연자로 5월 1일에 만날 명창은 류창선 씨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관소리 흥보가 전수자인 류창선 씨가 들려

줄 흥보가는 동편제 강도근 바디이며, 고수에는 임현빈(남원시립국악단)이 함께 한다.

5월 8일 펼쳐질 두 번째 무대 주인공 장문희씨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관소리 심청가 이수자로 현재 전라북도립국악원 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문희씨가 부를 관소리는 동초제 심청가로 이날 고수에는 조용수(국립창극단)와 조용복(국립국악원)이 함께 한다.

관람은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객석 띄어 앉기로 선착순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피아노학회 순회연주시리즈 군산 연주회' 5월 6일 개최

군산대학교 음악과와 현대음악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피아노학회, 현대음악 연구소가 주관하는 '한국피아노학회 순회연주시리즈 군산 연주회'가 5월 6일 목요일 오후 4시 군산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피아니스트 김희진, 윤철희, 피경선, 김준이 출연하여 바흐의 칸타타, BWV 147(4 hands),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 슈베르트 환상곡 F단조, D. 940(4 hands), 라흐마니노프의 조곡 2번, op. 17(2 pianos),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op.40(2 pianos),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6번, 스페타나의 론도 C장조(8 hands) 등이 연주된다.

음악회는 전석 초대로 진행되고, 공연 문의는 전화(010-3267-0255)로 가능하다.

연주분과위원장인 김준 피아니스트는 "이번 음악회는 한국피아노학회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시리즈 음악회로, 그 첫 번째 순서로 군산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프로그램을 지역 음악계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니,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이 관람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피아노학회는 31년간 활발한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음악계의 대표적인 음악 학술 단체로서 현재 1,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음악, 학술 및 공연예술 발표, 캠프, 세미나 등 다양한 음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진안군, 지역 문화재 활용 생생문화재 사업 본격 추진

진안군은 지난 23일 문화재청이 주관한 2021년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에 선정돼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품화하고 자립 가능한 사업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마이산 마실가자, ▲금마실 가자, ▲꽃마실 가자 등의 마실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진안생당 어른공소, 진안향교, 마이산 등을 탐방하고, 문화재 소재지 마을과 연계한 숙박, 농가 체험 및 공연 등을 포함하는 문화 관광 상품을 방문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생생문화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유산교육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외부의 전문 인력을 섭외하지 않고 관내에서 지역 내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활용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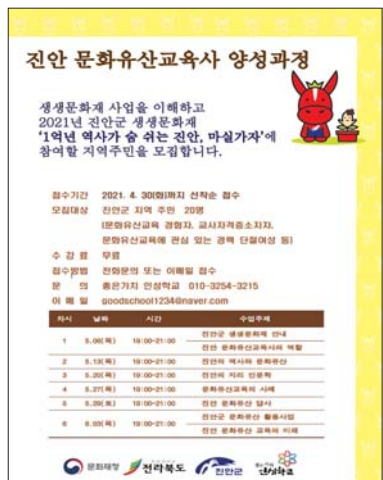
문화유산교육사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에서 공인하는 자격으로, 지원자는 진안군 생생문화재 사업 주요 프로그램에 보조교육사로 참여하고, 140시간의 경력 인정과 수료증을 발급받아, 진안 문화유산교육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추후 추진되는 마실 프로그램의 교육사로 활동하게 된다.

사업수행단체로 선정된 좋은가치인성학교(대표 김운희)는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문화유산교육사 지원자를 모집하며, 모집 인원은 대략 20명 내외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추진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은 지역 주민의 참여 정도가 사업 성공의 지표인 만큼 사업의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지역 문화유산교육사업도 추진중에 있으며, 관내 각급 학교에 양질의 문화재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진안군 생생문화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사진은 문화유산교육사 모집 포스터)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